

**2023. 7. 7.(금) 조간용**  
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디지털재단 AI·빅데이터팀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 사진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매수 : 4쪽	경영전략실장 (AI·빅데이터팀장 겸직)	주성환	570-4612	
	담당자	사업운영	김세린	570-4631
		언론홍보	유채란	570-4625
	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장		안영수	02-2174-5060
	빅데이터팀장		윤재웅	02-2174-5067
	담당자		김노훈	02-2174-5068
관련 누리집		<a href="https://sdf.seoul.kr">https://sdf.seoul.kr</a> <a href="https://seoulshinbo.co.kr">https://seoulshinbo.co.kr</a>		

## 서울디지털재단-서울신용보증재단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활용 돕는다

- 5일(수), 디지털재단,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양 기관 보유 빅데이터, 전문역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·사업 추진
- “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” 성공을 위한 공동협력 및 지속적 확대 추진

- 지난해 ‘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’로 소상공인 매출 27% 증대를 이뤄낸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.
- 지난해 처음 시행한 ‘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’는 2030세대들이 민간기업·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경영·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.
- 지난해 대학생 120명과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전월 대비 27.1% 증가하고 소상공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96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. 올해는 점포 50개로 확대 시행중이다.

- 지난 5일(수) 15시 서울디지털재단(이사장 강요식)과 서울신용보증재단(이사장 주철수)은 「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」을 체결했다.
- 이날 협약식은 서울스마트시티센터에서 진행됐으며,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.
-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, 양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디지털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연구 및 교육을 추진기로 약속했다.
- 구체적으로는 ▲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가 지원 ▲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 지원 ▲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촉진 ▲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·정보와 인적·물적 자원 제공 ▲소상공인 분야 빅데이터 제공(신용보증재단)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·AI공공 서비스 개발 지원(디지털재단)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특히,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“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”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.
-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“우리 재단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”며, “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특화 지원사업을 발굴·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“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교육을 상호협력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”라며 “COVID-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갈 것”이라고 전했다.

붙임. 협약식 사진

